

“믿음의 챔피언 혈통”

창세기 6:1-8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고 난 후, 노아와 그의 아들/자부 8 명만 남게 되었으니 우리는 노아의 가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가문을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그 노아의 혈통을 가리켜 ‘믿음의 챔피언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챔피언 혈통’이 된 것일까요?

1. 장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노아는 장가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 6:2)

이 세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죄악이 세상에 가득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과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다시 태어난 셋의 후손, 즉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죄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믿음이 없는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타락을 보시며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6:5-7)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 어머니가 분명히 아벨이나 셋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방백성과의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

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말 2:11)

하나님께서서는 이방백성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 7:1-4)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 첫번째 명령이 바로 이방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이렇게 이방백성과의 혼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방 백성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나면, 함께 믿음이 좋아지기 보다는 더 좋지 않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와 결혼하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음을 다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워싱턴성광교회의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8)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롬 9:11-13)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은혜’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예정론’ 또는 ‘선택의 교리’ 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벌려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② **그렇기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③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 ④ **또 순종의 삶과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120 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 6:3)

창세기 8 장에 보면, 홍수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지고 난 후 방주에서 그가 나오는데 두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실제로 여러가지 객관적인 정황상 홍수로 인한 물이 모두 빠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배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년 가까이 좁은 배 안에 있으면서 온갖 짐승들의 오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배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예배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실은 신앙 자체가 부담입니다. 부담되는게 예배이고, 부담되는게 신앙생활입니다. 부담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리켜 ‘희생’ 또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일조나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부담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성광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설교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에게 배워야 할 두가지 교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어땠을지 이야기해 보고, 노아의 모습 속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챔피언 혈통’ 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